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부법

EBS 중학

뉴런



국어 1

개념책 + 실전책 + 정답과 해설 + 미니북

- 비유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 상징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

## 더 알아 두기

### + 시어의 함축적 의미

사전적 의미 외에 작품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의미

예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 사전적 의미: 눈알 바깥 면의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 함축적 의미: 슬픔, 아픔, 불행, 고통, 시련

### + 비유의 다른 종류

• **활유법:**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예 목이 긴 메아리가 자맥질하는 곳

• **풍유법:**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속담이나 격언 등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예 가격을 보니 그 물건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1 비유

(1) 뜻: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원관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보조 관념

빗대어 표현한 대상

## (2) 효과

- ① 직접 말하는 것보다 신선한 느낌을 준다.
- ② 독자가 흥미롭게 대상을 대하게 된다.
- ③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3) 종류

① **직유법:**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 같은’, ‘~처럼’, ‘~인 듯’, ‘~인 양’ 등의 형식을 활용하여 비유하는 방법

예 • 어머니 마른 손 같은 조팝꽃이 한창이다.

• 밥티처럼 파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 ‘조팝꽃’을 ‘어머니의 마른 손’에, ‘별들’을 ‘밥티’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각각 ‘~ 같은’, ‘~처럼’의 형식을 사용함.

② **은유법:**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 동일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은 ~’ 등의 형식을 활용하여 비유하는 방법

예 •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나’를 ‘나룻배’에, ‘당신’을 ‘행인’에,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을 온돌방에서 아랫목보다 차가운 ‘윗목’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각각 ‘~은 ~’, ‘~의 ~’의 형식을 사용함.

## 예로 개념 확인

(가) ① 나무들이 / 샤워하고 있다.

저것 봐 / 저것 봐

②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영산홍은 빨강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중략〉

② 온 산이 공중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 정현정, 「나무들의 목욕」

(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있새에 이는 ③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③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③ **의인법**: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방법

예 말갹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해’를 사람의 얼굴에 빗대어 표현함.

④ **대유법**: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여 표현하거나,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물이나 관념으로 그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

예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 ‘들’이라는 부분으로 ‘국토’ 전체를 표현하였고, ‘삼천리’라는 거리의 개념으로 ‘우리 국토’를 표현하였음.

## 2 상징

(1) **뜻**: 표현하려는 대상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한다.

(2) **효과**: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넓고 풍부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3) **특징**

① 원관념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②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

③ 한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예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어둠’은 ‘해’가 떠오르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부정적 상황을 상징하고, ‘해’는 밝고 희망적이며 평화로운 이상 세계를 상징함.

### 더 알아 두기

#### 상징의 종류

- **개인적(창조적) 상징**: 개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상징으로 그 사람의 작품에 나타나는 고유한 상징임.
- **관습적 상징**: 시인이 속에 있는 특정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쓰여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상징임.

| 예         | 상징          |
|-----------|-------------|
| 동양의 '소나무' | 지조, 절개      |
| 서양의 '십자가' | 기독교, 희생, 고난 |

- **원형적 상징**: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임.

| 예 | 상징          |
|---|-------------|
| 불 | 정열, 파멸      |
| 물 | 생명력, 정화, 죽음 |

① **비유 - 의인법**: (가)에서는 ‘나무들이 / 샤워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인 의인법에 해당한다. 의인법을 사용하여 산의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더욱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

② **비유 - 은유법, 직유법**: (가)에서 진달래는 분홍 거품으로,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으로, 영산홍은 빨간 거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는 ~의’ 형식으로 비유하는 방법은 은유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온 산이 공중목욕탕처럼 /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에서는 ‘~처럼 ~의’ 형식으로 비유하는 방법인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유법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상징**: (나)에는 ‘바람’, ‘별’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가 활용되고 있다. (나)에서 ‘바람’은 ‘고난, 고통, 어려운 현실, 일제의 탄압’을 상징하고, ‘별’은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순수, 양심, 이상, 희망, 조국의 독립’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오규원

• **해제:** 봄에 내리는 눈이 주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노래한 작품이다. ‘봄눈’이라는 소재를 통해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느낌을 표현하면서 적절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봄눈이 내리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주제:** 포근하고 부드러운 봄눈의 느낌

## 이 시의 시적 상황

## 제품 하부의 제품

- **봄이라서 / 봄빛처럼 포근한**  
눈: 시의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면서 봄눈에 대한 말하는 이의 느낌이 잘 드러나고 있다.
-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봄눈이 쌓이는 장소를 표현하였다.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면서 눈이 여기저기 쌓이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마루에서 졸다가 깬 ~ 내리는 봄눈**: 포근하게 내리는 봄눈이 새끼 고양이이 눈 속에 비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 **봄 / 봄 하늘 / 봄 하늘의 봄눈**: 의도적으로 시행을 배열하여 부드러운 봄눈이 하늘에서 내려 쌓이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 담장, , 마당에 쌓이는 봄눈

▶ 새끼 고양이들의 눈 속에도 내리는 봄눈

▶ 새끼 고양이의 처럼 보드라운 봄눈

— 의도적인 시행의 배설로 봄눈이 내려 쌓이는 모습을 형상화함.

▶ 보드라운 봄 의 봄눈

## 01 이 시가 주는 느낌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자아낸다.
- ② 포근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 ③ 여유로움 속에서 가벼운 긴장감이 느껴진다.
- ④ 안타까운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따뜻함이 있다.
- ⑤ 봄이 주는 생동감 있고 경쾌한 느낌이 드러난다.

## 02 이 시의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중에서 중심 소재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담장                      ② 나무                      ③ 마당
- ④ 마루                      ⑤ 새끼 고양이의 눈

## 03 2연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봄눈이 주는 차가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 ② 봄눈이 여기저기 쌓이는 것을 강조하려고
- ③ 봄눈이 빠르게 내린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 ④ 봄눈이 쉽게 녹아 버리는 것을 나타내려고
- ⑤ 봄과 어울리지 않는 눈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 04 5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대상의 범위를 점점 넓혀 가며 봄눈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 ③ 봄눈을 통해 봄에 대한 말하는 이의 느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하늘’이라는 소재에 봄에 대한 말하는 이의 안타까운 감정을 실어 표현하였다.
- ⑤ 시행의 의도적 배열을 통해 봄눈이 내려 쌓이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중요 | 서술형**

05 <보기>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을 1연에서 찾아 쓰시오. (단, 원관념을 밝혀 쓸 것.)

## ◀ 보기 ▶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香氣)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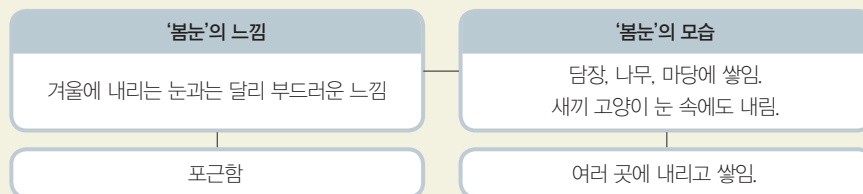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줄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生氣)가 뛰놀아라.

—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 100점 특강

## 🔗 ‘봄눈’이 주는 느낌과 모습



## 🔗 ‘봄눈’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

이 시에는 ‘봄빛처럼 포근한 눈’,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 보드라운’에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처럼 ~’의 형식을 사용하여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봄눈’이 가지고 있는 포근함이나 부드러움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지문 연구

- **해제:** ‘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인생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고백하듯이 노래하고 있다. ‘새로운 길’이라는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 **주제:**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려고 다짐하는 마음

## ■ 내용 연구

## 말하는 이의 상황과 태도

|                             |
|-----------------------------|
| 상황                          |
|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             |
| ↓                           |
| 태도                          |
|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br>나아가고자 함. |

## ■ 구절 풀이

- **내를 건너서 ~ 넘어서 마음**  
로: '내'와 '고개'는 험난한 곳.  
'술'과 '마음'은 험한 곳을 지나  
서 가고자 하는 곳의 의미를  
지닌다.
- **어제도 가고 ~ 새로운 길** 현  
재도 미래에도 가야 할 인생  
의 길을 항상 새로운 길을 가  
듯이 살고자 하는 말하는 이  
의 태도가 드러난다.
- **나의 길은 ~ 내일도.....** 2연  
의 변화된 형태로, 앞으로도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가겠다  
는 소망과 의지를 보여 준다.

## ■ 낱말 풀이

- \* 내: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

- ㉠  나를 건너서 숲으로    △: 인생의 고난, 시련  
㉡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희망과 평화

▶ 나와 고개를 지나 숲과    (으)로 감(‘나’의 여정).

-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인생의 길

▶ ‘나’는 새로운   을/를 감(길의 의미).

-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
-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 길을 가며 , 까치, 아가씨, 바람을 만남(길의 풍경).

-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 언제나    길을 가고자 함(길의 의미).

- 나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1연과 같은 내용으로 수미상관에 해당함.

▶ 나와  을/를 지나 숲과 마을로 감(‘나’의 여정).

- ①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전체 내용이 '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③ 인생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3연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내용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

- ① 여유롭고 행복한 느낌을 준다.
- ② 우울하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 ③ 경쾌하면서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 ④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⑤ 분주하면서 열정적인 분위기가 보인다.

- ① 말하는 이의 마음속 풍경
- ② 말하는 이가 꿈꾸는 이상향
- ③ 말하는 이가 겪게 되는 고난
- ④ 말하는 이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
- ⑤ 말하는 이가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

- ① 2연의 변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② 주제 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③ 말하는 이의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
- ④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⑤ 시대적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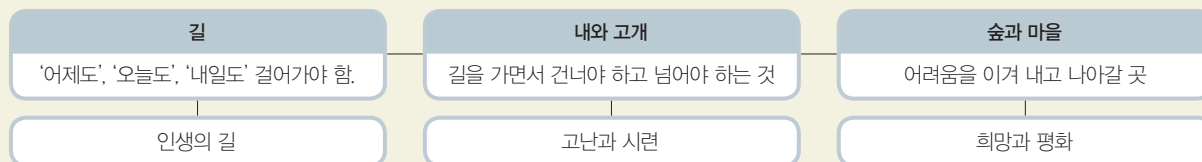
**05** 다음은 ㉠과 ㉡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다. 빈 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하시오.

● 보기 ●

‘내’는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로 건너기가 쉽지 않고, ‘고개’는 비탈진 곳으로 넘어가기 어렵지 않은 험난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내’와 ‘고개’는 ‘(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100점 특강

###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주제



### 수미상관의 효과

수미상관은 이 시와 같이 시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나 문장을 배치해 반복하는 구성이다. 이런 구성은 전체적으로 형태적 안정감을 주며,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 운율을 살릴 수 있으며, 시적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

## 윤선도

## 지문 연구



- **해제:** 다섯 자연물을 다섯 친구로 의인화하여 자연에 대한 사랑과 인간이 지녀야 할 덕성에 대해 노래하면서 그 자연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이 작품은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시조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주제:**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의 미덕에 대한 예찬

## 내용 연구

### 이 시의 구성

|    |         |
|----|---------|
| 1수 | 다섯 번 소개 |
| 2수 | 물       |
| 3수 | 바위      |
| 4수 | 소나무     |
| 5수 | 대나무     |
| 6수 | 달       |

## ■ 구절 풀이

- **두어라:** 종장 첫 음보는 세 글자여야 한다는 시조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사용한 감탄사이다.
- **구름 빛이 ~ 하노매라:** 구름과 바람은 영원하지 않고 쉽게 변함을 뜻한다.
- **푸르는 듯 누르나니:** 풀은 잠시 푸르다가 금세 시들어 색이 변한다는 의미이다.
- **더우면 ~ 잎 지거늘:** 사람들이 세상 형편에 따라 편하게 살아감을 꽃이 피고 잎이 지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곧기는 ~ 비었는:** 지조가 곧고 욕심이 없음을 뜻한다.

## ■ 낱말 풀이

- \* 그: 그것이.
- \* 좋다: 깨끗하다.
- \* 자로: 자주.
- \* 하노매라: 많구나.
- \* 누: (~할) 때, (~할) 적.
- \* 눈서리: 눈과 서리. 고난과 시련을 상징함.
- \* 모르는다: 모르는가.
- \* 구천: 땅속 깊은 밑바닥.
- \* 누 시기며: 누가 시키었으며.
- \* 비었는다: 비었는가.

(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자연물을 친구로 표현함. - 의인법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 귀 더욱 반갑고야.

-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 ▶ 다섯 번에 대한 소개

(나) ㉠ 구름 빛이 \* 좋다 하나 검기를 \* 자로 한다.

㉔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종교도 그칠 \*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물의 특성 - 많고도 변함이 없음.

▶ 물의 

(다) ㉔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㉔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바위의 특성 - 변하지 않음.

▶ 바위의 

(라)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 눈서리를 \* 모른다.  
 소나무의 특성 ① - 눈서리를 모름

\* 구천(九泉)에 뿌리 곧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소나무의 특성 ② - 뿌리가 곧음.

▶ 술의 지조와 

(마)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 곧기는 \* 뉘 시기며, 속은 어이 \* 비었는다.

대나무의 특성 ① - 곧음, 속이 빈.  
저렇고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대나무의 특성 ② - 사절 푸름. 대나무

▶ 대나무의   와/과 지조

(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달의 특징 ① - 밝게 빛남. 만물을 다 비춤.  
 밤중에 광명(光明)이 너만 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 달의 와/과 과목함

##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② 우리나라 전통 시의 형식을 보여 준다.
- ③ 자연에 대한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④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시인의 생각이 드러난다.
- ⑤ 자연의 특성과 인간의 속성이 대조적으로 그려진다.

## 02 이 시의 주된 표현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여 표현하였다.
- ②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였다.
- ③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로 표현하였다.
- ④ 문장 안에서 언어의 배열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였다.
- 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였다.

## 03 &lt;보기&gt;에서 제시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소재를 찾고, 그 소재가 가진 특성을 서술하시오.

◀ 보기 ▶

지조와 욕심이 없음을 상징하는 소재

## 04 (다)~(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덕성을 다루고 있는 것은?

- ① 아버이 살아실 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 ②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 ③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 ④ 노래 만든 사람 시름도 많기도 많으리.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 ⑤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있으랴 하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05 ㉠~㉣ 중, 대상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0점 특강

## 이 시에 나타난 자연물의 특성과 상징적 의미

| 자연물 | 특성                 | 상징적 의미(덕성) |
|-----|--------------------|------------|
| 물   | 깨끗하면서도 그치지 않음.     | 그치지 않는 영원함 |
| 바위  | 변치 않음.             | 불변성        |
| 소나무 | 눈서리를 모르며 뿌리가 곧음.   | 꾸꿨한 지조와 절개 |
| 대나무 | 곧고 속이 비었으며 사시에 푸름. | 욕심 없음과 지조  |
| 달   | 밝게 빛나며 보고도 말하지 않음. | 밝고 과묵함.    |

## 이 시의 비유적 표현

서시에 해당하는 1수에서 말하는 이는 자신의 다섯 친구를 소개하는데, 그 벗은 수석(水石)과 송죽(松竹)과 달이다.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라는 자연물을 ‘벗’이라고 부르며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였다.

# 4 사막을 같이 가는 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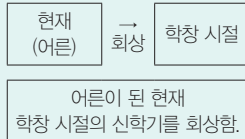
양귀자

## 지문 연구

- **해제:**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친구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수필이다. 글쓴이는 학창 시절 친구들과 헤어져 소외감을 느꼈던 신학기를 회상하며, 각박한 세상을 견디어 내기 위해 참다운 벗이 필요하고, 내가 먼저 참다운 벗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진정한 친구의 중요성과 참다운 벗이 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 내용 연구

#### 이 글의 구조



### 구절 풀이

-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곤 하던 그 느낌: 친한 친구와 떨어진 교실에서 경험한 외로움과 낯선 느낌.
- 친하지도 않은 ~ 달아나 버렸다: 친하지 않은 짝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점심시간에 대한 느낌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사랑하고 믿어 주는 ~ 사는 나날: 어른이 되어 겪는 현재의 삶을 더 힘겹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날말 풀이

- \* **선연히:** 실제로 보는 것같이 생생하게.
- \* **무렵한자:** 염치가 없음을 느껴 마음이 부끄럽고 거북한지.
- \* **속살거리는데:** 남이 알아들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자질구레하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 \* **소외감:** 남에게 따돌림을 당하여 멀어진 듯한 느낌.
- \* **황폐한:** 정신이나 생활 따위가 거칠어지고 메말라 가는.

(가) 학창 시절에는 유별나게도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신학기가 싫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친구는 거의 언제나 다른 반으로 가 버렸고, 한 반이 되지 않기를 빌고 빌었던 친구는 어김없이 한 반으로 편성되곤 하는 불행 아닌 불행 앞에서 얼마나 많이 속상했는지 모른다. 글쓴이의 학창 시절 회상

▶ 친한 친구와 헤어져야 했던 신학기에 대한 기억

(나) 그래서 ㉠ 학년이 바뀌면 처음 얼마 동안은 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떠 학교에 갈 일을 생각하면 이유: 친구들과 헤어져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곤 하던 그 느낌을 지금도 나는 \*선연히 떠올릴 수가 있다.

▶ 마음을 잡지 못했던 신학기

(다) 특히 운동장 조희나 체육 시간 같은 때 친한 친구도 없이 외따로 떨어져 그 지겨운 시간을 견딜 생각을 하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점심시간은 또 얼마나 \*무렵한지, 친하지도 않은 짝과 김치 국물 흐른 도시락을 꺼내 놓고 밥알 씹는 소리까지 서로 환히 들어 가며 밥 먹는 생각을 하면 입맛도 달아나 버렸다. 친하지 않은 친구와 밥을 먹는 점심시간의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함.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새 하나둘씩 친한 친구를 만 들어 저희들끼리 밥도 먹고 조희 시간에도 나란히 서서 다정하게 \*속살거리는데, 그 속에서 혼자만 외톨이로 빙빙 돌고 있는 아이는 나 하나뿐인 것처럼 생각되곤 했다.

▶ 친한 친구 없이 견뎌야 했던 신학기에 느꼈던 지겨움과

(라) 그 지독한 \*소외감은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다. 여름 방학을 할 때쯤이면 운동장 조희나 점심시간을 외롭게 하지 않을 단짝 한 명 정도는 발견하기 마련이니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었던 셈이다.

▶ 이/가 지나면서 단짝 친구를 발견함.

(마) 그러나 역시 시간이 흐르면 신학기 또한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별과 탐색, 그리고 그 지독한 소외감에 시달리는 쓸쓸한 나날이 잊지도 않고 이어지는 것이었다. 신학기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음.

▶ 신학기가 될 때마다 을/를 느꼈던 기억

(바) 이제는 반이 나뉘고 새로운 급우들한테서 낯섦을 실컷 맛봐야 하는 신학기 따위는 영영 내 곁에서 사라졌다. 그 대신 \*사랑하고 믿어 주는 것보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음. 시기하고 미워하며, 또는 빼앗고 속이는 일이 더 많은 \*황폐한 세상살이에 어른이 된 현재의 삶이 더 힘겨움. 낯가림하며 사는 나날 속으로 내던져지고 말았다.

▶ 어른이 된 현재의 황폐한 세상살이

## 01 이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가 겪은 일화들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열하고 있다.
- ② 글쓴이가 대상에게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글쓴이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글쓴이가 특정 대상과의 갈등에 대한 해결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⑤ 현재의 글쓴이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학창 시절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02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남을 따돌리는 친구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군.
- ② 글쓴이는 신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③ 글쓴이는 자신이 겪었던 학창 시절의 일면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군.
- ④ 글쓴이는 학창 시절을 벗어난 것에 대한 안도감과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군.
- ⑤ 글쓴이는 당시의 기억을 통해 자신이 개선해야 할 점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군.

## 03 이 글의 내용을 글쓴이가 일기로 썼다고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올해도 나는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져서 다른 반이 되어서 무척 속상하다. ㉡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신학기가 무척 견디기 힘들다. ㉢ 다른 친구들은 벌써 친한 친구들이 생긴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다. ㉣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 이제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신학기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04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 ② 운동장 조회 같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 ③ 친한 친구들과 헤어져서 외롭게 학교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 ④ 신학년이 되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 ⑤ 다른 반이 되어 떨어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 ! 서술형

## 05 (바)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조건>에 맞게 한 문장으로 쓰시오.

### ◀ 조건 ▶

- ‘학창 시절’과 ‘어른이 된 현재’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 것.
-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을 드러낼 것.

## 100점 특강

### 이 글의 구성

#### <이 글에서 말하는 나>

- ‘나’ = 글쓴이 자신을 나타냄.
- 어른이 된 ‘나’가 학창 시절을 회상함.

#### <글쓴이가 회상한 내용>

- 학창 시절에 신학기마다 반이 바뀌어 친한 친구와 헤어져서 지내야 했던 기억
- 그 당시에 낯설, 외로움, 괴로움, 소외감 등을 느꼈음.

#### <어른이 된 글쓴이의 생각>

- 인생은 신학기의 낯설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음.

# 4 사막을 같이 가는 벗

## 내용 연구

글쓰기가 생각하는 '참다운 벗'의 의미

- 험난한 인생살이에서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친구
- 내 삶의 따뜻한 동반자라는 느낌이 전해져 오는 친구

➔ 각박한 세상에서 영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 구절 풀이

- 망망대해를 헤매는 ~ 가득한 일이다: 인생은 신학기에 외로움을 견디는 것보다 넓은 바다를 향해하는 것처럼 더욱 두렵고 힘든 일이다.
- 친구 없이 ~ 사라지는 일이라고: '무서운 사막'은 사막에 있듯이 외롭고 힘겹게 사는 것. '증인 없이 사라지는 일'은 삶의 의미를 설명해 줄 친구가 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이처럼 무섭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내가 먼저 ~ 열매인 것이다: '탐'과 '열매'는 모두 '진정한 우정'을 비유한 말로, 나 자신이 먼저 참다운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우리한테 참다운 ~ 다름이 없다: 자신이 먼저 참다운 벗이 되어 주어야만 참다운 벗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날말 풀이

- \* 망망대해: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
- \* 돈독한: 도답고 성실한.
- \* 낙향하여: 시골로 거처를 옮기거나 이사하여.
- \* 식솔: 한 집안에 딸린 구성원.
- \* 불현듯: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건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
- \* 각박하다: 인정이 없고 삭막하다.

(가) \*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처럼 힘든 인생의 <sup>운유법</sup>향해는 신학기 잠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 가득한 일이다. <sup>직유법</sup>삶은 고난투성이고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기만 하는데, 홀로 헤치는 파도는 높고 거칠기만 한 것이다. <sup>운유법</sup>

▶ 삶은 망망대해를 향해하듯이 두렵고 힘든 일임.

(나) 바로 이때에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해진다. ㉠ 인생이란 험난한 항해를 같이 겪고 있다는 <sup>삶이 두렵고 힘들 때</sup>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친구, 혹은 내 삶의 따뜻한 동반자라는 느낌이 전해져 오는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에는 이 세상도 한번 살아 볼 만하다는 용기가 솟는다. <sup>영혼을 함께 나누는 친구</sup>그런 친구와 \* 돈독한 우정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sup>힘들 때 영혼을 함께 나눌 수 있으므로</sup>실패한 삶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 <sup>힘들 때 영혼을 함께 나눌 수 있으므로</sup>힘겨울 때 을/를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면 실패한 삶이 아님.

(다) 살아가면서 그런 우정을 가꾸는 이들을 종종 만난다. 비록 나의 친구는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일은 참 <sup>영혼을 함께 나누는</sup>아름답다. 언젠가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 낙향하여 쓸쓸히 살아가는 것을 안쓰러워하다 못해 자기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 친구 옆에서 땅을 일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이미 결혼하여 각각의 \* 식솔을 이끌고 있는 두 사람한테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양쪽 집의 가족들 모두는, <sup>도치법</sup>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였다. 냉혹한 이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 두 집이 힘을 합쳤으니 얼마나 든든하냐고.

▶ 영혼을 함께 나누는 친구 사이를 보았던 예

(라) ㉡ 누군가는 말했다. \* 친구 없이 사는 일만큼 무서운 사막은 없다고. 또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은 <sup>도치법, 운유법</sup>증인 없이 사라지는 일이라고.

그 말들을 새기고 있으면 \* 불현듯 마음이 쩡해 온다. 나는 지금 무서운 사막을 홀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sup>증인 없이 사라지는 일과 관련됨</sup>지금 내 삶의 의미를 설명해 줄 단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마음을 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해 봄.

(마) 하지만 우정은 상호 간의 교류이다. 일방적인 행위가 결코 아니다. ㉢ 말하자면 \* 내가 먼저 <sup>탐, 열매: '우정의 보조 개념, 운유법'</sup>쓸어야 할 탐이고 내가 밭을 경작해서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을 제대로 쌓는 사람, 혹은 빗칼 곱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참 드물다. 친구는 많지만 진정으로 벗이라 부를 만한 이는 몇이나 되는지, <sup>성의법</sup>그것만이라도 한 번쯤 되새겨 보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 우리한테 참다운 벗이 없다는 말은 곧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다운 벗이 되어 주지 않았다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 상호 간의 교류인 우정을 위해 자신이 참다운 벗이 되었는지 성찰해야 함.

(바) 세상이 참 \* 각박하다고들 말한다. 세상이 온통 거짓과 불화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sup>고장법</sup>따뜻한 가슴일 것이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가슴이 되어 주는 일일 것이다. <sup>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sup>

▶ 한 세상을 살기 위해 진정한 친구가 필요함.

## 06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② 학창 시절보다 어른이 된 후의 삶이 더 힘겹고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 ③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 ④ 진정한 우정은 친구가 실패했을 때 그 친구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⑤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 07 (가)에 나타난 표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생’을 바다를 건너는 ‘항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군.
- ② ‘파도’는 삶을 힘들게 하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 ③ 직유법과 도치법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군.
- ④ 친구가 없이 홀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가 더욱 힘들다는 의미가 담겨 있군.
- 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힘겨운 인생의 의미를 더욱 인상 깊게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는군.

## 08 중요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 ㉮.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단조로운 느낌을 없애고 있다.
- ㉮. 하나의 원관념을 다른 보조 관념을 활용하여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대상의 특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09 ㉮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은?

- ① 내게로 달려오는 산
- ②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③ 참새들이 글씨를 공부하지요.
- ④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⑤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 10 서술형

㉮에서 (1) 비유가 사용된 부분 두 곳을 찾아 쓰고, (2) ㉮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 (1):
- (2): 내가 먼저 ( )

## 100점 특강

###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

|     |                                                                 |                                                                              |
|-----|-----------------------------------------------------------------|------------------------------------------------------------------------------|
| 직유법 | ‘~같이’, ‘~듯이’ 등의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 예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처럼 힘든 인생: ‘힘든 인생’을 매우 넓은 바다를 헤매는 것으로 비유함.                       |
| 은유법 |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 동일한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                             | 예 인생의 항해: ‘인생’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함.                                         |
| 도치법 | 문장이나 구의 정상적인 순서를 뒤바꾸어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                               | 예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일만큼 무서운 사막은 없다고.: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
| 설의법 |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그 사실을 강조하는 방법                     | 예 그것만이라도 한 번쯤 되새겨 보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의문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삶의 자세를 강조함. |
| 과장법 |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게 또는 작게 표현하여 강조하는 방법                     | 예 세상이 온통 거짓과 불화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거짓’과 ‘불화’의 정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세상살이의 험난함을 강조함.    |

### 이 글에서 ‘사막’의 의미

‘사막’은 비도 자주 오지 않고 척박하여 인간 활동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각박하고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상징하기 위해 ‘사막’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험난한 ‘사막’ 같은 세상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 지문 연구

- **해제:** 용이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도 아이들의 머슴 노릇을 하는 용이는 학교에 가기를 싫어한다. 어느 날 등굣길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평을 본 용이는 이에 힘을 얻어 당당한 태도로 아이들에게 맞서면서 갈등을 극복해 나간다.
- **주제:** 편견에 맞서는 용이 있는 태도의 중요성

### 내용 연구

#### 이 소설의 등장인물과 상황

|     |                                                               |
|-----|---------------------------------------------------------------|
| 용이  |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들어다 주는 것이 싫어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함 |
| 어머니 | 용이를 설득하여 학교에 보냄.                                              |
| 아이들 | 용이 아버지가 머슴이니까 용이도 자신들의 책보를 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

### 구절 풀이

- 하도 아이들이 ~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천연두를 앓고 난 후 얼굴에 흉터가 생긴 순이를 놀려 순이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말이다.
- 남의 책 보통이만 ~ 부끄럽다니까요?: 아이들이 등굣길에 용이에게 책 보통이를 나르도록 하는 상황에 대해 용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어머니와 갈등하는 원인이다.

### 날말 풀이

- \* **국민학교:** '초등학교'의 전 용어.
- \* **책보:** 책을 싸는 보자기.
- \* **산전:** 산에 있는 밭.

(가) “엄마, 정말 나 이젠 학교 안 갈래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보리밥 그릇을 무릎 앞에 놓고 먹을 생각도 않는 용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나타냄.

“야가 또 이런다. 지발 어미 속 그만 썩혀라. 3년이나 다닌 학교를 그만두면 어쩔래? 순이 봐라, 글한 자도 모르제? 순인 기집애라서 그래도 괜찮지. 사내가 \*국민학교도 졸업 못 하면 어떡할라고?” 순이는 학교를 그만두었음을 알 수 있음. 어머니가 용이를 학교에 보내려는 이유  
순이는 뒷집 아이입니다. 작년에 학교에 입학했는데, \*하도 아이들이 곰보박지라고 놀려서 한 달도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얼굴이 조금 엷었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요즘 아침밥만 먹으면 \*책보 대신 바구니를 들고 혼자 들로 나갑니다. 냉이를 캐는 것입니다.

“나도 이젠 4학년 됐잖아요. \*남의 책 보통이만 메고 다니는 거 부끄럽다니까요?” 용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

“글쎄, 그거 늘 하는 소리제. 지발 좀 참아라. 없는 기 원수지. 그놈 애들이 왜 그렇게 못살게 하나?” 어머니도 밥순갈을 들 생각을 얹으시고 한숨을 쉬시더니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야야, 너 아부지도 올해나 남의 일을 하면 그만두실 까다. 한 해만 참아라. 부디 한 해만…….”

용이는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올해만 하면 그만두신다는 말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반가운 마음 때문

“정말 그만뉘요? 올해만 하고?”

“너 장렐 생각해서라도 그만두시게 해야지. 남의 \*산전을 얻어서 죽을 먹더라도…….”

㉠ 용이는 된장국에 보리밥을 말더니 단숨에 퍼먹고는 책보를 허리에 둘러매고 일어났습니다. ‘올해만 참으면 된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짐.

▶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등교하는 용이

(나) 모진 겨울을 이겨 낸 보리들이 새파랗게 살아난 밭둑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은 모두 어깨를 우쭐거리며 ‘향토 예비군의 노래’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산기슭을 돌아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모두 용이 발밑에 책보를 던졌습니다. 3년 동안 용이 어깨에 매달려 재를 넘어가고 넘어오던 책보들입니다. 용이 아버지가 같은 동네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용이까지 남의 집을 날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가 그동안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계속 날라 왔음. 아이들이 용이에게 책 보통이를 나르게 하는 이유

“자 인마, 너 인제 4학년이 돼서 기운도 세졌잖아. 하나 더 날라라.”

지금까지 같은 반의 아이들만 그렇게 하던 것이 오늘은 한 학년 위의 성윤이까지도 따라와 커다란 책보를 놓고 갑니다. ▶           의 아들인 용이에게 책보를 맡기는 아이들

(다) 저 밑에서 따라 올라오던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모두 책보를 허리에 둘러매고 용이를 앞질러 올라갑니다. 그 아이들은 용이를 돌아보면서 저희들끼리 무엇을 수군거렸습니다.

“헤헤, 4학년이 됐다는 아이가 남의 책보나 메다 주고…….” / “참 ㄴ똥난 아이제.”

모두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 ‘뭐, 똥난 아이라고?’ 용이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임.

▶ 2, 3학년 아이들까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용이

**01**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이는 올해 국민학교 4학년 학생이다.
- ② 용이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신다.
- ③ 뒷집의 순이는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 ④ 용이 어머니는 용이가 국민학교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 ⑤ 용이는 자신이 글을 한 자도 모른다고 아이들이 놀려서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02**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리밥 그릇’이나 ‘머슴살이’를 통해 용이네 집안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
- ② ‘국민학교’, ‘향토 예비군의 노래’ 등의 낯선 말로 미루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짐작할 수 있어.
- ③ ‘없는 기 원수’라는 어머니 말을 통해 용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머슴이라는 이유로 용이도 머슴 노릇을 해야 한다고 아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어.
- ④ ‘너 장렐 생각해서라도’라는 어머니 말씀으로 미루어 아버지의 직업이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시대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
- ⑤ ‘3년 동안 용이 어깨에 매달려’라는 말을 통해 용이가 그동안 계속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들어 주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

**03** ㉠에 담긴 용이의 심리에 대해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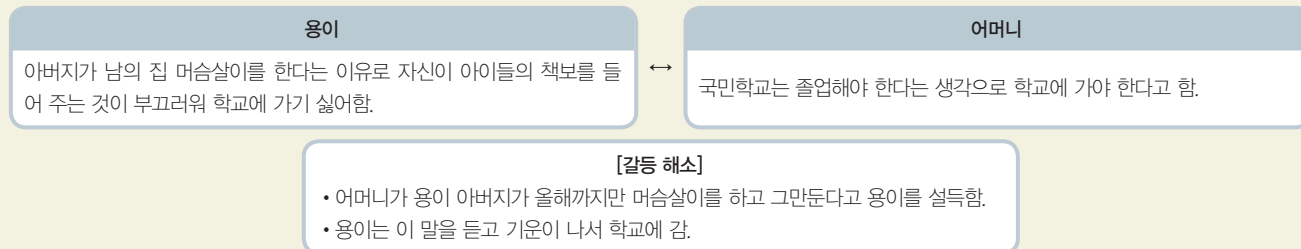
- ① 우리 집 식구들이 가난으로 고생하는 것도 올해면 끝나겠구나.
- ② 아침을 배불리 먹으니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의욕이 생기는구나.
- ③ 나를 믿어 주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밥을 먹고 일어나야겠어.
- ④ 1년만 참으면 남의 책 보통이 메고 다니는 생활을 끝낼 수 있으니까 올해만 참자.
- ⑤ 내가 건강하지 못하지만 어머니께서 정성껏 차려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공부해야겠어.

**0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2, 3학년 아이들이 수군대면서 한 말이다.
- ② 평상시 아이들이 용이를 놀릴 때 쓰는 말이다.
- ③ 용이의 겉모습에 대해 놀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④ 용이가 자신의 입장에서 들었다고 생각한 말이다.
- ⑤ 책 보통이를 들 만한 힘도 내지 못하는 용이를 비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 서술형****05** (1) (가)의 갈등 주체를 쓰고, (2)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1) \_\_\_\_\_ 와/과 \_\_\_\_\_ 의 갈등  
 (2) \_\_\_\_\_ (라)는 말로 인해서 해소되었다.

**100점 특강****이 소설에 나타난 갈등과 해소 (1)****아이들이 용이에게 책 보통이를 나르게 하는 이유**

용이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하고 있으므로, 머슴의 아들인 용이도 머슴 노릇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내용 연구

### 용이의 태도 변화

|         |                                 |
|---------|---------------------------------|
| 평을 보기 전 |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들어 주며 자신의 처지를 속상해함. |
|---------|---------------------------------|



|        |                              |
|--------|------------------------------|
| 평을 본 후 | 자신감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맞서게 됨. |
|--------|------------------------------|

## 구절 풀이

- 용이는 화가 났습니다.: 2, 3학년 아이들이 자신을 놀리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난 것이다.
- 돌맹이가 저 ~ 하나가 솟아 올랐습니다.: 돌맹이를 던진 것을 계기로 '커다란 뭉텅이', 즉 평이 날아오르면서 용이의 심리와 행동이 변화하게 된다.
- 날개를 짝 ~ 마구 솟구쳤습니다.: 평이 소리를 내며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힘', 즉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맞설 용기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지금까지의 ~ 댄 아이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보였던 용이의 모습과 달리 용이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날말 풀이

- \* 거머쥐고는: 틀어잡거나 휘감아 쥐고는.

(가) •용이는 화가 났습니다. 벌써 고개 위에 다 올라갔는지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산 위에서 들려왔을 때, 용이는 눈앞에 있는 책보를 그냥 콕콕 짓밟아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발밑에 돌맹이 하나가 밟혔습니다. 용이는 벌떡 일어나 그 돌맹이를 집어 힘껏 골짜기 아래로 던졌습니다. <sup>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분노 때문임.</sup> 돌맹이가 저 밑에 떨어지자, 갑자기 온 산골을 뒤흔드는 소리를 치면서 ① 커다란 뭉텅이 하나가 <sup>용이의 행동이 변화하게 된 계기</sup> 솟아올랐습니다.

“꼬공 꼬공 푸르륵!” / 그것은 온 산골의 가라앉은 공기를 뒤흔들어 놓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정말 살아 있는 목숨이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 ‘야, 참 멋지다!’ / •날개를 짝 펴고 풍지를 쭉 뻗고 아침 햇빛에 눈부신 모습으로 산을 넘어가는 평을 쳐다보는 용이의 온몸에 갑자기 어떤 힘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용이는 그 자리에서 한 번 훌쩍 뛰어올라 보았습니다. 하늘이라도 날아오를 듯합니다. 용이는 발에 채이는 책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 위로 던졌습니다.

▶ 힘차게 날아오르는 평을 보고 용기와 을/를 얻은 용이가 다른 아이들의 책보를 던짐.

(나) 횡! 공중에서 몇 바퀴 돌던 책보가 ‘퍽’ 소리를 내면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용이는 두 번째 책보를 집어던졌습니다. / 또 하나, 또 하나…….

마지막에 던진 작대기는 건너편 벼랑의 소나무 가지를 철썩 치도록 멀리 떨어졌습니다. / ‘됐다!’

용이는 이제 하늘이 탁 트이고 가슴이 시원해져서, 저 건너 산을 보고 하하하 웃었습니다.

떠가는 구름을 따라 마구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 책보를 던진 후 후련함을 느끼는 용이

(다) 용이는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히, 그러나 힘찬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책보를 모두 날리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은 것이 조금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들 책보 말이제? 저 밑의 뚜껍비 바우 밑에 던져 놔여.”

“뭐? 이 새끼가!” / “이 새끼 돌았나?” / “빨리 못 가져 오겠나?”

그러나 용이는 여전히 조용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 “나, 이제 못한 놈 아니야!” / “어, 이 새끼가!”

“요런, 머슴의 새끼가…….” / “×새끼! 맛 좀 볼래?”

아이들의 발과 주먹이 용이를 향해 덮쳐 왔을 때, 용이는 번개같이 거기를 빠져 나와 몇 걸음 발을 옮기더니, 발밑에 있는 돌을 두 손으로 한 개씩 \*거머쥐고는 거기 있는 커다란 바윗돌 위에 평층 뛰어올랐습니다. 그 몸놀림이 어찌나 재빠른지, 아이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용이와는 아주 다른 댄 아이였습니다. / “자, 텀빌랍 텀벼! 누구든지 오는 놈은 이 돌로 박살 낼끼다!”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을 때, 뒤에서 한 아이가, / “난, 내 책보 가질러 갈란다.” /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아이들도 모두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 “나도 간다.”

“나도 간다.” / 하고 달려갔습니다.

▶ 용이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고 한 아이들

(라) 아이들이 모두 ‘와야’ 하고, 아까 올라온 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용이는 또 한 번 가슴을 확 펴고 하하하 웃었습니다.

“난 이제 못한 놈 아니야!” / 그러고는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순이를 데리고 오자. 순이를 놀리는 놈은 어떤 놈이고 용서 안 할 끼다.”

용이는 돌아서서, 햇빛이 눈부신 내리받이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제는 단숨에 학교까지 뛰어갈 듯합니다. 하늘에는 하얀 구름 한 송이가 날고 있습니다. 용이는 훌쩍 한 번 뛰더니 마구 두 팔을 내저으면서 내리달렸습니다. 그것은 ② 마치 한 마리의 평이 소리치면서 날아오르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 당당하게 등교하는 용이

## 06 이 글에 드러난 갈등과 해결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아이들과 용이의 갈등 → 용이가 아이들에게 맞서서 해결함.
- ② 아이들과 용이의 갈등 → 용이가 아이들을 말로 설득하여 해결함.
- ③ 아이들과 순이의 갈등 → 용이가 중간에서 순이와 함께 맞서서 해결함.
- ④ 아이들과 순이, 용이의 갈등 → 용이가 자신과 순이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해결함.
- ⑤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의 갈등 → 중간에 용이가 이를 중재하여 해결함.

## 0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골에서 하늘로 날아오른 꿩을 나타낸다.
- ② 용이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힘찬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 ③ 용이는 이 모습에 영향을 받아 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 ④ 용이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변화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용이가 평상시에 자신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느끼던 대상이다.

## 08 중요

㉠에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내 마음은 호수요
- ②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③ 지상에는 / 아홉 켄레의 신발
- ④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⑤ 어두운 방안엔 / 빠알간 솜불이 피고

## ! 서술형

## 09 <보기>는 탐구 과제와 그 수행 과정이다. ㉠와 ㉡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서술하시오.

### • 보기 •

- 탐구 과제: 이 작품에서 ‘꿩’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지 용이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알아봅시다.
- 탐구 방법: 용이가 ‘꿩’을 보기 전과 ‘꿩’을 본 후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 • 과제 수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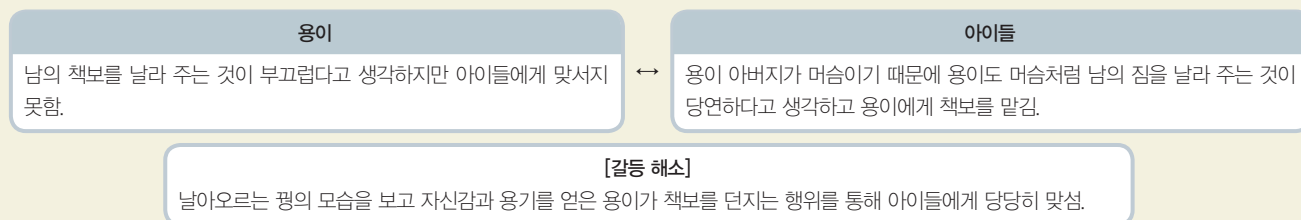
학생 1: 용이가 ‘꿩’을 보기 전에는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들어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맞서지 않았습니다.

학생 2: 용이가 ‘꿩’을 본 후에는 ㉠

학생 3: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꿩’은 용이에게 ㉡

## 100점 특강

### 이 소설에 나타난 갈등과 해소 (2)



### 이 ‘꿩’의 상징적 의미와 그 영향

| 꿩의 모습                                                                                                                         | 의미                             | 영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 산골의 공기를 뒤흔들어 놓는 힘찬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아오름.</li> <li>• 아침 햇빛을 받으며 날개를 짝 펴고 날아감.</li> </ul> | 생명의 소리, 자유로움, 당당함, 자신감 등을 상징함. | 용이의 심리와 행동을 변화시킴. |

### 이 소설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

| 비유적 표현                                                                                                     | 의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늘이라도 날아오를 듯합니다.</li> <li>• 떠가는 구름을 따라 마구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li> </ul> |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자신감과 용기가 솟음을 나타냄. |



#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

## 개념 압축 APP

### 1 비유

(1) 뜻: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 ) 표현하는 것

(2) 효과

- ① 직접 말하는 것보다 ( ) 느낌을 준다.
- ② 독자가 흥미롭게 대상을 대하게 된다.
- ③ 대상을 더욱 ( ) 전달한다.

(3) 종류

|     |                                                                                                                                                                                                     |
|-----|-----------------------------------------------------------------------------------------------------------------------------------------------------------------------------------------------------|
| 직유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 )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li> <li>• ‘~ 같은’, ‘~( )’, ‘~인 듯’, ‘~인 양’ 등의 형식 활용</li> <li>• 예 예쁜 손 같은 단풍잎,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 ( )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li> <li>• ‘~은 ~이다’, ‘~의 ~’, ‘~인 ~’의 형식 활용</li> <li>• 예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li> </ul> |
| 의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이/가 아닌 대상을 ( )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li> <li>• 예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여 표현하거나, 대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물이나 관념으로 그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li> <li>• 예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li> </ul>                                            |

### 2 상징

(1) 뜻: 표현하려는 대상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

(2) 효과: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보다 넓고 풍부한 의미를 지님.

(3) 특징

- ① (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
- ③ 한 작품 속에서 ( )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별’은 노래하는 대상으로,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순수, 이상, 희망’ 등을 상징함.

## 필수 어휘 사전

- 원관념: 비유되는 대상, 즉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뜻함.
- 보조 관념: 비유하는 대상, 즉 원관념이 잘 드러나도록 돕는 관념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 확인 문제

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 방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 동일한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

- ① 직유법
- ② 은유법
- ③ 의인법
- ④ 대유법
- ⑤ 대조법

2. 비유법의 종류가 나머지 와 다른 것은?

- ① 내 마음은 호수요
- ② 예쁜 손 같은 단풍잎
- ③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
- ④ 선생님은 낙타처럼 늠름했다.
- ⑤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함장인 양하고.

3. 다음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단풍잎 '단풍'



## 학습 목표

- 비유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 상징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 학습 활동 따라잡기

#### 1 다음 시에서 '상징'이 활용된 시어를 찾고 그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2 다음 시를 바탕으로 (1)~(3)의 활동을 해 보자.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1) 이 시에 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무엇일까?

(2)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1)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3) 이 시에서처럼 자신의 주변에서 친구와 같이 생각하는 사물 다섯 가지를 찾아서 적어 보자.



### 풀어 주기

◎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이다. 인생을 길로 표현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시에서도 '길'은 인생을 상징한다. 길 이외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들을 찾고, 그 의미를 길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길: 인생, 삶의 여정

내, 고개: 고난과 시련

숲, 마을: 목표와 희망

민들레, 바람, 까치, 아가씨: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

◎ 율선도의 연시조 '오우가' 가운데 한 수이다. 이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 말하는 이의 마음이 되어 자신의 주변에서 다섯 친구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표현 방법이 주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1) 이 시조에서는 자연물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예시 답안** 의인법

(2)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면 자연물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

**예시 답안** 자연에 대한 친근함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3) 자신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물을 떠올려 본다.

**예시 답안** 휴대 전화, 컴퓨터,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초등학교 졸업 앨범, 가족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이 내린다.  
봄이라서  
봄빛처럼 포근한 눈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그리고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있는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내리는 봄눈

감았다 뗐다 하는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보드라운

봄  
봄 하늘  
봄 하늘의 봄눈

## 학습 목표 응용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봄날의 정취를 노래한 시이다.
- ②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시이다.
- ③ 다양한 심상으로 상반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대상을 구체화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느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이 시의 '봄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 ② 고양이의 눈에 비치고 있다.
- ③ 봄이 주는 포근함을 가지고 있다.
- ④ 담장과 나무, 마당에 쌓이고 있다.
- ⑤ 봄에 대한 아쉬움을 불러일으킨다.

**중요**  
03 이 시의 1연, 4연에 쓰인 주된 표현 방법이 활용된 시구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② 내 고장 칠월은 /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 ③ 물바가지에 떠 담던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 ④ 코스모스 가웃가웃 얼굴 내밀며 손 흔들거든
- ⑤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04 이 시의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봄눈을 보며 추억에 잠겨 있다.
- ② 봄눈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꿈꾸고 있다.
- ③ 봄눈의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다.
- ④ 봄눈을 바라보며 봄눈과 겨울눈을 대조하고 있다.
- ⑤ 봄눈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포근함과 부드러움을 느낀다.

## 고난도 응용

## 01 &lt;보기&gt;의 설명과 어울리는 연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의도적 시행 배열이 드러난다.
- 봄눈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시어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 대상을 좁혀 가며 봄눈의 느낌을 강조한다.

- ① 1연    ② 2연    ③ 3연    ④ 4연    ⑤ 5연

중요

## 02 &lt;보기&gt;와 비교했을 때, ㉠의 표현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담장, 나무,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 ① 운율이 느껴진다.  
 ② 봄눈의 부드러움을 강조한다.  
 ③ 봄눈이 골고루 내리는 느낌을 준다.  
 ④ 봄눈이 천천히 내리는 것 같이 느껴진다.  
 ⑤ 봄눈에 대한 말하는 이의 시선이 느껴진다.

중요

| 서술형

## 03 이 시와 &lt;보기&gt;의 시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유적 표현이 무엇인지 쓰고, 그 표현이 주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 보기 ▶

강나루 건너  
밀밭 길을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술익은 마을 마다  
타는 저녁 놀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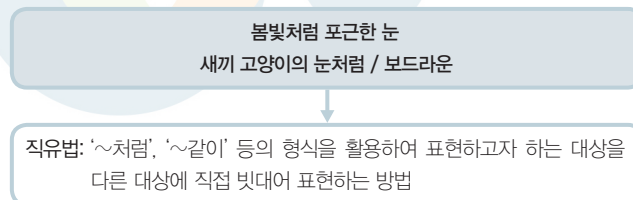
## 소단원 한눈에 보기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서정적, (      )                                                                                                                                                                             |
| 운율 | 내재율                                                                                                                                                                                       |
| 제재 | (      )                                                                                                                                                                                  |
| 주제 | (      )하고 부드럽게 내리는 봄눈의 정취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눈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묘사함.</li> <li>• 시어와 시행을 반복하여 (      )을/를 형성함.</li> <li>• (      )을/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함.</li> <li>• 반복법을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임.</li> </ul> |

## ▶ 봄눈이 주는 느낌



## ▶ 이 시의 표현 방법



묘상호 '통공' 근표 '곡목' '하하하' ㉠

## 출제 포인트

- 이 시에 활용된 비유적 표현이 무엇인지 출제된다.
- 이 시에서 봄의 정취를 드러내기 위한 봄눈의 느낌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 2

## 새로운 길

| 윤동주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학습 목표 응용

#### 01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어가 가진 상징적 의미가 주제를 드러낸다.
- ② 자연 속에서 누리는 조화로운 삶을 보여 준다.
- ③ 시간적 흐름과 반대로 시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이 주는 생동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언어적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 02 이 시에서 첫 연과 마지막 연에 같은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운율을 형성한다.
- ② 시적인 여운을 남긴다.
- ③ 형태적인 안정감을 준다.
- ④ 새로운 심상을 만들어 낸다.
- ⑤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03 **중요** 이 시의 주된 표현 방법과 같은 표현 방법을 보여 주는 시구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② 털털거리며 저들끼리 얼굴을 부비는 수박들
- ③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 ④ 저것은 벽 /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 그때 /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 ⑤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 보자. / 파랗다, 하얗다, 깨끗하다, 싱그럽다 / 신선하다, 짜릿하다, 후련하다

#### 04 이 시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 ①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려는 다짐
- ②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
- ③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달픔
- ④ 지나온 길에 대한 후회와 새로운 길에 대한 설렘
- 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방황

## 고난도 응용

중요

### 01 <보기>의 설명과 어울리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 인간의 내적 경험이나 감정, 사상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 관념만으로 나타낸다.
-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보다 넓고 풍부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① 내      ② 숲      ③ 고개      ④ 마을      ⑤ 나

### 02 이 시의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②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③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④ 다른 존재들과의 교감을 통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⑤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에도 길을 걸어갈 것이다.

| 서술형

### 03 <보기>에 드러나는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시인이 겹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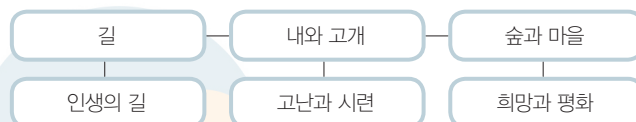
보기

윤동주(1917~1945): 시인. 북간도 명동촌 출생. 1934년부터 1942년까지 시 76편, 동시 35편 등 총 116편의 문학 작품을 남겼다. 어두운 현실과 역사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자아를 성찰하는 내용의 시를 많이 남겼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시인은 어두운 시대에 민족의 양심을 드러낸 저항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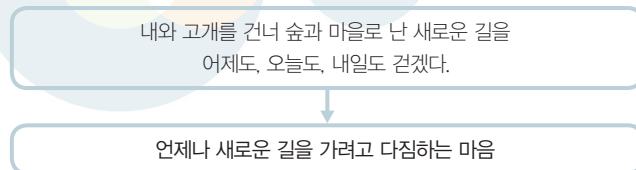
## 소단원 한눈에 보기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      ), 감각적                                                                                                                                                                             |
| 운율 | 내재율                                                                                                                                                                                       |
| 제재 | (      )                                                                                                                                                                                  |
| 주제 |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려고 다짐하는 마음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적 시어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함.</li> <li>• 3연을 중심으로 앞뒤가 대칭적인 구조를 보여 줌.</li> <li>• (      )의 구성으로 이루어짐.</li> <li>•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소리를 통해 운율을 형성함.</li> </ul> |

#### ▶ 시어의 상징적 의미



#### ▶ 이 시의 주제



문단·문단·문단·문단·문단

#### 출제 포인트

- 이 시에서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 방법이 출제된다.
- 이 시에서 활용한 수미상관, 대칭 구조 등의 독특한 시적 구성이 출제된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괴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좋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야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른다.  
구천(九泉)에 뿌리 곧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는다.  
저렇고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光明)이 너만 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 학습 목표 응용

#### 01 이 시의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 ② 과거의 삶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 ③ 현실에서 도피하여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 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하는 마음을 보인다.

#### 02 이 시에 드러나는 ‘다섯 벗’의 특징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 깨끗하면서도 그치지 않음.
- ② 바위: 변하지 않고 과묵함.
- ③ 소나무: 눈서리를 모르며 뿌리가 곧음.
- ④ 대나무: 곧고 속이 비었으며 사시에 푸름.
- ⑤ 달: 밝게 빛나며 보고도 말하지 않음.

#### 03 이 시에 쓰인 비유법과 같은 비유법이 사용된 시구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 ② 새악시 불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 ③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 밤이 나는 싫어 …….
- ④ 이제 울 /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 우리들 가슴 속에서 / 움트리라
- ⑤ 빠알간 보석 알을 / 꼬옥 감춘 석류는 // 빗방울이 / 툭 툭 건드려도 / 시치미를 떤다.

#### 04 이 시에서 서로 대조가 되는 소재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꽃 ↔ 솔
- ② 바람 ↔ 물
- ③ 풀 ↔ 바위
- ④ 구름 ↔ 바람
- ⑤ 풀 ↔ 대나무

## 고난도 응용

01 이 시의 소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름이나 바람은 가변성을 가진 존재이다.
- ② 솔은 눈서리를 모르고 뿌리가 곧은 특성이 있다.
- ③ 대나무는 지조가 있고, 욕심이 없는 속성을 가졌다.
- ④ 바위와 물은 가변성과 불변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이다.
- ⑤ 달은 세상 사람들을 두루 비추는 덕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02 다음은 이 시에 등장하는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한 표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소재 | 상징적 의미                            |
|----|-----------------------------------|
| 바위 | 외부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본래 모습을 지켜 가는 삶의 태도 |
| 솔  | ( ㉠ ) 곧고 깨끗한 삶의 태도                |

## 중요 | 서술형

03 이 시와 <보기>의 시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유법의 종류를 쓰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보기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 김광섭, 「산」

## 소단원 한눈에 보기

|    |                                                                                                                                        |
|----|----------------------------------------------------------------------------------------------------------------------------------------|
| 갈래 | 고시조, 평시조, 연시조                                                                                                                          |
| 성격 | 예찬적, 자연 친화적, 상징적                                                                                                                       |
| 운율 | 외형률                                                                                                                                    |
| 제재 |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
| 주제 | 다섯 자연물의 (     )을/를 예찬함.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된 4음보의 운율이 드러남.</li> <li>• 자연물을 (     )하여 예찬함.</li> <li>• 자연물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함.</li> </ul> |

## ▶ 시어의 상징적 의미

| 소재  | 특성                 | 상징적 의미          |
|-----|--------------------|-----------------|
| 물   | 깨끗하면서도 그치지 않음.     | 그치지 않는 영원함.     |
| 바위  | 변하지 않음.            | 불변함.            |
| 소나무 | 눈서리를 모르고 뿌리가 곧음.   | 깨끗한 지조와 절개      |
| 대나무 | 곧고 속이 비었으며 사시에 푸름. | 욕심이 없고, 지조가 있음. |
| 달   | 밝게 빛나며 보고도 말하지 않음. | 밝고 과묵함.         |

## ▶ 이 시의 표현 방법

의인법 자연물을 벗이라고 부르며 사람처럼 표현함.

+

상징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성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자연물이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함.

해설 100

## 출제 포인트

- 이 시는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 이 시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덕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내용이 출제된다.

# 4 사막을 같이 가는 벗

I 양귀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창 시절**에는 유별나게도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신학기가 싫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친구는 거의 언제나 다른 반으로 가 버렸고, 한 반이 되지 않기를 빌고 빌었던 친구는 어김없이 한 반으로 편성되곤 하는 불행 아닌 불행 앞에서 얼마나 많이 속상해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학년이 바뀌면 처음 얼마 동안은 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떠 학교에 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곤 하던 그 느낌을 **지금**도 나는 선연히 떠올릴 수가 있다.

나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처럼 힘든 인생의 항해는 신학기 잠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가득한 일이다. 삶은 고난투성이고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기만 하는데, 홀로 헤치는 파도는 높고 거칠기만 한 것이다.

다 바로 이때에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해진다. 인생이란 험난한 항해를 같이 겪고 있다는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친구, 혹은 내 삶의 따뜻한 동반자라는 느낌이 전해져 오는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에는 이 세상도 한번 살아 볼 만하다는 용기가 솟는다. 그런 친구와 돈독한 우정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실패한 삶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일만큼 무서운 사막은 없다고. 또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증인 없이 사라지는 일이라고. / 그 말들을 새기고 있으면 불현듯 마음이 쩡해 온다. 나는 지금 ㉠**무서운 사막을 홀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 삶의 의미를 설명해 줄 단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마 하지만 우정은 상호 간의 교류이다. 일방적인 행위가 결코 아니다. 말하자면 내가 먼저 쌓아야 할 탑이고 내가 발을 경작해서 밟아야 할 열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을 제대로 쌓는 사람**, 혹은 ㉢**빛깔 곱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참 드물다. 친구는 많지만 진정으로 벗이라 부를 만한 이는 몇이나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한 번쯤 되새겨 보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에게 참다운 벗이 없다는 말은 곧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다운 벗이 되어 주지 않았다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 세상이 참 각박하다고들 말한다. 세상이 온통 거짓과 불화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가슴일 것이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가슴이 되어 주는 일일 것이다.

## 학습 목표 응용

###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② 글쓴이가 떠올린 학창 시절의 기억을 토대로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글쓴이의 체험과 관련된 일화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 ④ 글쓴이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세상살이가 험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문장의 순서에 변화를 줌으로써 지루한 느낌을 없애고 있다.

### 02 (나)에 사용된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에 직접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인생’을 ‘항해’에 은유적으로 빗댄으로써 인생살이를 바다와 연관 지어 나타내고 있다.
- ③ 인생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다가가는 것을 ‘파도’에 직접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 ④ ‘망망대해’, ‘항해’, ‘파도’ 등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03 ㉠과 ㉡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내가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을, ㉡은 상대방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은 친구와 협력하여 뜻을 이룬 사람을, ㉡은 자신만의 노력으로 뜻을 이룬 사람을 나타낸다.
- ③ ㉠과 ㉡은 실패하지 않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룬 사람을 의미한다.
- ④ ㉠과 ㉡은 자신에게 진정한 벗이 있는지 반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⑤ ㉠과 ㉡은 모두 스스로 노력해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

## 고난도 응용

**01** (가)에서 **학창 시절**의 '나'에게 **지금**의 '나'가 해 줄 법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학기마다 친한 친구가 없어서 마음을 잡지 못했던 일이 늘 반복되곤 했지.
- ② 학창 시절의 기억과 이후에 겪은 일을 생각해 보면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야.
- ③ 돌이켜 생각하면 신학기에 친구가 없어서 힘들었던 일은 이후에 겪은 일보다 그리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
- ④ 그 당시의 일을 떠올리면 신학기에 좀 더 빨리 마음을 잡고 많은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것은 후회되는 일이야.
- ⑤ 친한 친구와 헤어져서 신학기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 주려고 노력해야 해.

**02**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보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 보기 ▶

나는 나의 시가 / 오가는 이들의 눈길이나 끌기 위해  
최신 유행의 의상 걸치기에 급급해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바라지 않는다 나의 시가  
생활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순수의 꽃으로 서가에 꽂혀  
호사가의 장식품이 되는 것을

— 김남주, 「나는 나의 시가」

- ① 직유법, 은유법                      ② 은유법, 의인법
- ③ 은유법, 도치법                    ④ 직유법, 설의법
- ⑤ 직유법, 과장법

## 중요 | 서술형

**03** ①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효과를 탐구하였다. (1) ①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쓰고, (2) ①의 의미를 다음 <조건>에 맞게 설명하시오.

## ◀ 조건 ▶

- (마)에서 '사막'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말을 (마)에서 찾고, 그 단어를 활용하여 '~ 것'의 형식으로 쓸 것.

## 소단원 한눈에 보기

|    |                                                                                                                                                                                                  |
|----|--------------------------------------------------------------------------------------------------------------------------------------------------------------------------------------------------|
| 갈래 | (            )                                                                                                                                                                                   |
| 성격 | 체험적, 회상적, 고백적, 성찰적                                                                                                                                                                               |
| 제재 | 진정한 (            )의 의미                                                                                                                                                                           |
| 주제 | 진정한 친구의 의미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방법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            )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이를 통해 깨달은 바를 제시하고 있다.</li> <li>• 직유법, 은유법, 도치법, 설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li> </ul> |

## ▶ 이 글의 구조

|    |                                               |
|----|-----------------------------------------------|
| 처음 | 친한 친구들과 헤어져 지내야 했던 신학기의 외로움과 괴로움              |
| 중간 | 힘든 세상살이에서 영혼을 나눌 친구를 만나는 것의 의미와 그러한 친구를 보았던 예 |
| 끝  | 우정은 상호 간의 교류이므로 내가 먼저 누군가의 참다운 벗이 되어야 함.      |

## ▶ 이 글에 사용된 주된 표현 방법

## • 비유적 표현

|     |                                           |
|-----|-------------------------------------------|
| 직유법 |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처럼 힘든 인생                       |
| 은유법 | 인생의 항해, 파도, 무서운 사막, 증인 없이 사라지는 일, 탑, 열매 등 |

## • 상징적 표현

'사막을 함께 가는 벗'에서 '사막'의 상징적 의미: '사막'은 비가 오지 않고 척박한 땅을 나타내며, 이 글에서는 각박하고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의미한다.

문단 '단락' 표시

## 출제 포인트

- 이 글은 직유법, 은유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글을 읽으며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부분과 그 표현 효과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도 이제 4학년 됐잖아요. 남의 책 보듯이만 메고 다니는 거 부끄럽다니까요?”

“글쎄, 그거 늘 하는 소리제. 지발 좀 참아라. 없는 기 원수지. 그놈 애들이 왜 그렇게 못살게 하나?”

어머니도 밥숟갈을 들 생각을 앓으시고 한숨을 쉬시더니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야야, 너 아부지도 올해나 남의 일을 하면 그만두실 까다. 한 해만 참아라. 부디 한 해만…….”

**나** 벌써 고개 위에 다 올라갔는지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산 위에서 들려왔을 때, ㉠용이는 눈앞에 있는 책보를 그냥 콕콕 짓밟아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발밑에 돌맹이 하나가 밟혔습니다. 용이는 벌떡 일어나 그 돌맹이를 집어 힘껏 골짜기 아래로 던졌습니다. 돌맹이가 저 밑에 떨어지자, 갑자기 온 산골을 뒤흔드는 소리를 치면서 커다란 문령이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꼬공 꼬공 푸르르!” / 그것은 온 산골의 가라앉은 공기를 뒤흔들어 놓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정말 살아 있는 목숨이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 ‘야, 참 멋지다!’

날개를 짹 펴고 꼬지를 쭉 뻗고 아침 햇빛에 눈부신 모습으로 산을 넘어가는 ㉡핑을 쳐다보는 용이의 온몸에 갑자기 **어떤 힘**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용이는 그 자리에서 한번 훌쩍 뛰어올라 보았습니다.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듯합니다. 용이는 발에 채이는 책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 위로 던졌습니다.

**다** 그 몸놀림이 어찌나 재빠른지, 아이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용이와는 아주 다른 판 아이였습니다.

“자, 덤빌람 덤벼! 누구든지 오는 놈은 이 돌로 박살낼끼다!”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을 때, 뒤에 서 한 아이가,

“난, 내 책보 가질러 갈란다.” / 하고 달려갔습니다.

**라** 아이들이 모두 ‘와아’ 하고, 아까 올라온 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용이는 또 한 번 가슴을 확 펴고 하하 하 웃었습니다.

— “난 이제 못난 놈 아니야!”  
[A] 그리고는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 “내일 아침에는 순이를 데리고 오자. 순이를 놀리는 놈은 어떤 놈이고 용서 안 할 끼다.”

용이는 돌아서서, 햇빛이 눈부신 내리받이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제는 단숨에 학교까지 뛰어갈 듯합니다. 하늘에

는 하얀 구름 한 송이가 날고 있습니다. 용이는 훌쩍 한번 뛰더니 마구 두 팔을 내저으면서 내리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마리의 핑이 소리치면서 날아오르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 학습 목표 응용

**01** 이 글에 드러난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용이와 어머니 사이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에서 갈등의 원인은 용이가 아이들 책보를 들어 주어야 한다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 ③ (나)에서 용이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짐작할 수 있다.
- ④ (나)와 (다)를 통해 용이가 아이들과 외적인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다)에서 드러난 외적 갈등은 (라)에서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심화되고 있다.

**02** ㉠과 ㉡에 나타난 심리를 정리한 내용으로 바른 것은?

|   | ㉠     | ㉡   |
|---|-------|-----|
| ① | 두려움   | 미안함 |
| ② | 부끄러움  | 고마움 |
| ③ | 당황스러움 | 허탈함 |
| ④ | 화가 남  | 후련함 |
| ⑤ | 걱정스러움 | 당당함 |

## 03 **중요**

**어떤 힘**의 의미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ㄱ.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
- 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다는 성취감
- ㄷ. 자신 있게 상대방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
- ㄹ. 하기 싫은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결단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고난도 응용

**01** 이 글을 읽고 학생들이 탐구 과제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적절한 주제를 선정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경민: 나는 이 글에서 ‘뽕’이 어떤 상징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

석빈: 나는 이 글에서 ‘용이’와 ‘순이’가 어떤 일을 계기로 화해하는지 알아보려고 해.

진희: 나는 이 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용이의 심리가 변화한 과정을 정리해 보려고 해.

현서: 나는 이 글에서 ‘아이들’이 ‘용이’에게 사과하게 된 이유를 파악해 보려고 해.

- ① 경민, 석빈      ② 경민, 진희      ③ 석빈, 진희  
④ 석빈, 현서      ⑤ 진희, 현서

**02** [A]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용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제 더 이상 남의 책 보통이를 들어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② 나는 앞으로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③ 나처럼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던 순이도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어.  
④ 만일 순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받으면 그 아이들을 혼내 주어야겠어.  
⑤ 순이 앞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의 책보를 들어 주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겠어.

## 중요 | 서술형

**03** 이 글에서 ㉑의 상징적 의미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 조건 ▶

- ㉑의 모습이 용이에게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쓸 것.
- ‘~을/를 상징한다.’라는 형태의 문장으로 쓸 것.

## 소단원 한눈에 보기

|    |                                                                                                                                                                              |
|----|------------------------------------------------------------------------------------------------------------------------------------------------------------------------------|
| 갈래 | 단편 소설, 성장 소설                                                                                                                                                                 |
| 배경 | 1970년대 초반의 한 시골 마을                                                                                                                                                           |
| 시점 | 3인칭 시점                                                                                                                                                                       |
| 주제 | 편견에 당당히 맞서는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인 소재를 사용하여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li> <li>• 주인공의 태도 변화가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li> <li>• 다양한 소재를 통해 (      )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li> </ul> |

### ▶ 이 작품 속의 갈등 양상

|       |                                                                                                                                                                                                                                                                                                                                                        |
|-------|--------------------------------------------------------------------------------------------------------------------------------------------------------------------------------------------------------------------------------------------------------------------------------------------------------------------------------------------------------|
| 내적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용이의 심리적 갈등</li> <li>- 아버지가 머슴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끄럽고 속상함.</li> </ul>                                                                                                                                                                                                                |
| 외적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이와 어머니의 갈등</li> <li>-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용이와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갈등</li> <li>→ 아버지께서 내년에 머슴살이를 그만두신다는 어머니의 설득으로 해소됨.</li> <li>• 용이와 친구들의 갈등</li> <li>-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날라 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용이와 이런 용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의 갈등</li> <li>-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던져 버린 용이와 이를 추궁하는 아이들의 갈등</li> <li>→ 용이가 아이들에게 당당히 맞서서 대응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됨.</li> </ul> |

### ▶ ‘뽕’의 상징적 의미

어떤 속박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자신감이 넘치는 용기 있는 태도를 상징함.

한글 맞춤법 제24조 1항

### 출제 포인트

- 이 글에서는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각각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작품 속 인물들의 입장이나 상황과 심리, 태도 변화 등을 파악하며 글을 읽도록 한다.
- 이 글에서는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소재의 특징과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원 평가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눈이 내린다.

봄이라서  
봄빛처럼 포근한 눈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그리고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있는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내리는 봄눈

감았다 떼다 하는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보드라운

┌ 봄  
[A] 봄 하늘  
└ 봄 하늘의 봄눈

— 오규원 「포근한 봄」

나 내 뱃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종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어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에 뿌리 곧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B]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는다.  
└ 저렇고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 윤선도 「오우가」

01

중요

〈보기〉와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香氣(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봄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줄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쪽 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生氣(생기)가 뛰놀아라.

- ① 비유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점이 공통적이야.
- ② ‘고양이’라는 소재가 주는 포근한 느낌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야.
- ③ 대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야.
- ④ (가)는 〈보기〉와 달리 명사로 마무리되는 시행이 많아.
- ⑤ 〈보기〉는 (가)와 달리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어.

02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인간 세계의 덕목을 드러내고 있어.
-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물’을 통해 때에 따라 융통성 있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④ ‘꽃’과 ‘풀’은 ‘바위’와 대조적인 속성을 지닌 소재로군.
- ⑤ ‘술’을 통해 깨끗한 지조와 절개를 지닌 자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0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대상이며, ㉡은 화자가 실제로 접촉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소재이며, ㉡은 화자와 상반되는 특징을 지닌 소재이다.
- ③ ㉠은 특정 계절에 대한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며, ㉡은 인생의 시련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지니게 하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 서술형

### 04 (가)의 [A]와 같이 시행을 배열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서술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시행을 배열하여 (                      )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서술형

### 05 (나)의 [B]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그'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십시오.

대나무의 곧음을 통해 지조를 드러내며, 속이 빈 모습을 통해 (                      )

### [06~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윤동주, 「새로운 길」

나 학창 시절에는 유별나게도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신학기가 싫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친구는 거의 언제나 다른 반으로 가 버렸고, 한 반이 되지 않기를 빌고 빌었던 친구는 어김없이 한 반으로 편성되곤 하는 불행 아닌 불행 앞에서 얼마나 많이 속상해 했는지 모른다. / 그래서 학년이 바뀌면 처음 얼마 동안은 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떠 학교에 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찢어지듯 하던 그 느낌을 지금도 나는 선연히 떠올릴 수가 있다. <중략>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처럼 힘든 인생의 항해는 신학기 잠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 가득한 일이다. 삶은 고난투성이고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기만 하는데, 홀로 헤치는 파도는 높고 거칠기만 한 것이다. 바로 이때에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해진다. 인생이란 험난한 항해를 같이 겪고 있다는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친구, 혹은 내 삶의 따뜻한 동반자라는 느낌이 전해져 오는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에는 이 세상도 한번 살아 볼 만하다는 용기가 솟는다. 그런 친구와 돈독한 우정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실패한 삶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일만큼 ㉡ 무서운 사막은 없다고. 또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증인 없이 사라지는 일이라고.

그 말들을 새기고 있으면 불현듯 마음이 찡해 온다. ㉢ 나는 지금 무서운 사막을 홀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 삶의 의미를 설명해 줄 단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우정은 상호 간의 교류이다. 일방적인 행위가 결코 아니다. 말하자면 내가 먼저 쌓아야 할 탑이고 내가 발을 경작해서 밟아야 할 열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제대로 쌓는 사람, 혹은 빗길 곱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참 드물다. 친구는 많지만 진정으로 벗이라 부를 만한 이는 몇이나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한 번쯤 되새겨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한테 참다운 벗이 없다는 말은 곧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다운 벗이 되어 주지 않았다는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 양귀자, 「사막을 같이 가는 벗」

## 단원 평가

### 06 ㉓와 ㉔가 나누었을 법한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 삶이 이어지는 동안 새로운 상황은 계속 펼쳐지는 것 같아요.
- ② ㉔: 맞아요. 학창 시절에는 신학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네요.
- ③ ㉓: 그러게 말이에요. ‘내’와 ‘고개’처럼 크고 작은 고난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 ④ ㉔: 그럴 때일수록 높은 ‘파도’가 치듯 험난한 인생길을 함께 헤쳐 나갈 진실한 친구가 필요해요.
- ⑤ ㉓: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숲’과 ‘마을’을 목표로 계속 걸어 나갈 거예요.

중요

### 07 다음 중 ㉓와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 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 ②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 ③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을 향(向)하여 혼드는 /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④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 ⑤ 눈은 살아 있다. /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서술형

### 08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가)의 작가가 가고자 한 길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보기

시인 윤동주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끝없이 반성하고 고민하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시대에 대한 양심을 지키고자 했다.

### [0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도 이제 4학년 됐잖아요. 남의 책 보듯이만 메고 다니는 거 부끄럽다니까요?”

“글쎄, 그거 늘 하는 소리제. 지랄 좀 참아라. 없는 기 원수지. 그놈 애들이 왜 그렇게 못살게 하나?”

어머니도 밥순간을 들 생각을 앓으시고 한숨을 쉬시더니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야야, 너 아버지도 올해나 남의 일을 하면 그만두실 까다. 한 해만 참아라. 부디 한 해만…….”

용이는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올해만 하면 그만두신다는 말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정말 그만뒤요? 올해만 하고?”

“너 장렐 생각해서라도 그만두시게 해야지. 남의 산전을 얻어서 죽을 먹더라도…….”

용이는 된장국에 보리밥을 말더니 단숨에 퍼먹고는 책보를 허리에 둘러매고 일어났습니다. ‘올해만 참으면 된다!’

나 그러다가 산기슭을 돌아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모두 용이 발밑에 책보를 던졌습니다. 3년 동안 용이 어깨에 매달려 재를 넘어가고 넘어오던 책보들입니다. 용이 아버지가 같은 동네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용이까지 남의 짐을 날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저 밑에서 따라 올라오던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모두 책보를 허리에 둘러매고 용이를 앞질러 올라갑니다. 그 아이들은 용이를 돌아보면서 저희들끼리 무엇을 수군거렸습니다.

“헤헤, 4학년이 됐다는 아이가 남의 책보나 메다 주고…….”

“참 못난 아이제.”

모두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뭘, 못난 아이라고?’

라 용이는 화가 났습니다. 벌써 고개 위에 다 올라갔는지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산 위에서 들려왔을 때, 용이는 눈앞에 있는 책보를 그냥 콕콕 짓밟아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발밑에 돌맹이 하나가 밟혔습니다. 용이는 벌떡 일어나 그 돌맹이를 집어 힘껏 골짜기 아래로 던졌습니다. 돌맹이가 저 밑에 떨어지자, 갑자기 온 산골을 뒤흔드는 소리를 치면서 커다란 뭉텅이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꼬공 꼬공 푸르르!” /그것은 온 산골의 가라앉은 [A] 공기를 뒤흔들어 놓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정말 살아 있는 목숨이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야, 참 멋지다!’

[B] 날개를 짹 펴고 풍지를 쭉 뻗고 아침 햇빛에 눈부신 모습으로 산을 넘어가는 꿩을 쳐다보는 용이의 온몸에 갑자기 어떤 힘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용이는 그 자리에서 한번 훌쩍 뛰어올라 보았습니다. 하늘이라도 날아오를 듯합니다. 용이는 발에 채이는 책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 위로 던졌습니다.

마 “너들 책보 말이지? 저 밑의 뚜껑비 바우 밑에 던져 놔.”  
“뭐? 이 새끼가!” / “이 새끼 돌았나?”  
“빨리 못 가져 오겠나?”  
그러나 용이는 여전히 조용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못난 놈 아니야!” <중략>

㉠ 아이들의 발과 주먹이 용이를 향해 덮쳐 왔을 때, 용이는 번개같이 거기를 빠져 나와 몇 걸음 발을 옮기더니, 발 밑에 있는 돌을 두 손으로 한 개씩 거머쥐고는 거기 있는 커다란 바윗돌 위에 경충 뛰어올랐습니다. 그 몸놀림이 어찌나 재빠른지, ㉡ 아이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용이와는 아주 다른 판 아이였습니다.

“자, 덤빌람 덤벼! 누구든지 오는 놈은 이 돌로 박살낼까다!”

바 ㉢ 아이들이 모두 ‘와아’ 하고, 아까 올라온 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용이는 또 한 번 가슴을 확 펴고 하하 웃었습니다. / “난 이제 못난 놈 아니야!”

그러고는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순이를 데리고 오자. 순이를 놀리는 놈은 어떤 놈이고 용서 안 할 까다.” / 용이는 돌아서서, 햇빛이 눈부신 내리받잇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제는 단숨에 학교까지 뛰어갈 듯 합니다. 하늘에는 하얀 구름 한 송이가 날고 있습니다. 용이는 훌쩍 한번 뛰더니 마구 두 팔을 내저으면서 내리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마리의 꿩이 소리치면서 날아오르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 이오덕, 「꿩」

## 09 이 글을 읽고 떠올린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이가 어머니께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장면
- ② 어머니 말씀을 듣고 용이가 힘을 내서 학교에 가는 장면
- ③ 아이들이 고갯길에서 용이에게 책 보통이를 맡기는 장면
- ④ 2, 3학년 학생들이 책 보통이를 들고 가는 용이를 놀리는 장면
- ⑤ 용이가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멀리 내던지는 장면

## 10 ㉠~㉢의 심리를 추측해 보았다. 작품의 내용으로 미루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남의 책 보통이나 들어 주는 머슴의 아들인 주제에 우리에게 도전을 해?
- ② ㉠: 당연히 들어 주어야 하는 책 보통이를 간수하지 못하다니!
- ③ ㉠: 우리가 알던 예전의 용이가 아닌데, 어딘가 힘이 생긴 것 같아.
- ④ ㉢: 용이가 저렇게 강해지다니, 이제 용이와 친하게 지내야겠어.
- ⑤ ㉢: 이제 용이를 더 이상 놀리거나 부러먹을 수 없겠구나.

### 서술형

## 11 (나)와 (다)에서 드러난 갈등은 (바)에서 해소되고 있다. (1)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라)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2) 이를 통해 어떻게 갈등이 해소되었는지 용이의 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 (1) \_\_\_\_\_
- (2) \_\_\_\_\_

### 중요 서술형

## 12 <보기>를 참고할 때 [A], [B]를 통해 거두는 효과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보기

‘상징’은 표현하려는 대상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로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추상적인 대상이나 감정 등을 드러낸다.

### 조건

- [A]와 [B]에서 ‘상징’이 되는 사물과 이를 통해 드러내려는 ‘추상적인 대상이나 감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쓸 것.
- ‘~ 표현할 수 있다.’의 형태로 쓸 것.